

국민통합위, 「이주민 근로자와 상생(相生)」 특별위원회 출범

- 이주민 근로자가 '새로운 우리'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-
 - 맞춤형 인력수급, 해외 인재 유치·육성, 사업자·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및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조성 중심으로 정책 대안 논의 -

-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위원장 김한길)는 3월 26일(화) 10시,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이주민 근로자와 상생」 특별위원회(이하 특위) 출범식을 갖고, 첫 활동을 시작했다.
 - 한국 사회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,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'다인종·다문화 국가' 진입을 앞두고 있다.
-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「이주민 근로자와 상생」 특위를 출범했다.
 - 특위는 김석호 특위 위원장(現 서울대 교수) 등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·연구계·현장 분야의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.
 - 특히, 사업자 및 이주 배경 근로자 등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.
-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, 준비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▲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▲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▲사업자·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▲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의 4가지 핵심 방향성을 가지고,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.
 - 우선,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·적소에 필요한 인력 공급과 사업주-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, 이주민 근로자 수요·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.

- 또한,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와 전문·숙련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,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.
 - 이와 함께, 사업자·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,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,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.
 - 마지막으로 효율적 지원·관리 체계 구축,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,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-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“사업자·이주민·일반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,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하여,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-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“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,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”며,
- “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, 우리와 함께 사는 ‘새로운 우리’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담당부서	국민통합지원단 문화통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전수경 (02-2100-3461)
		담당자	사무관	양연희 (02-2100-3433)
			주무관	김성민 (02-2100-3465)

□ 특위 위원 (14명)

사진	이름	주요 경력	비고	
< 특위 위원장 >				
1		김석호	• 現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• 現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• 美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	사회문화분과 위원장
* 박은주 위원, 이도희 위원 : 사회·문화분과위원은 분과위원 자격으로 참여				
< 특위위원 (13) > 학계 4, 산업분야(연구) 3, 연구계 3, 현장 3 (남 7, 여 6)				
2		노민선	• 現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• 現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• 중앙대 HRD정책학 박사	산업 분야 (중소기업)
3		문경희	• 現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• 前 법무부 제7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 • Australian National Univ 정치학 박사	학계 (국제정책)
4		민숙원	• 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• 現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선임직 이사 • 美 위스콘신매디슨대학 교육학 박사	연구계 (직업능력개발, 유학생)
5		박광배	• 現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• 現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위원 • 서강대 경제학 박사	산업 분야 (건설)
6		박효민	• 現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교수 • 現 한국이민정책학회 편집위원 • 美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사회학 박사	학계 (이주민, 사회통합)

사진		이름	주요 경력	비고
7		엄진영	• 現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• 現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• 美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경제학 박사	산업 분야 (농업)
8		오경석	• 現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센터장 • 現 한국이민행정학회 부회장 • 前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 전문위원	현장 (외국인지원)
9		이병하	• 現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• 現 한국이민학회 부회장 • 美 Rutgers University 정치학 박사	학계 (글로벌 정책·제도)
10		이창원	• 現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• 前 법무부 제5기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 • 美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학 박사	연구계 (정책·제도)
11		장서현	• 現 고려대 사회학과 조교수 • 現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위원 • 美 뉴욕시립대 사회학 박사	학계 (사회학적 관점)
12		장흔성	• 現 K-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• 現 법무부 사회통합 위원 • 대전대 아동보육상담학 박사	현장 (지자체 외국인정책 통합 플랫폼)
13		정기선	• 現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• 前 이민정책연구원 원장, 한국이민학회 회장 • 美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학 박사	연구계 (정책·제도)
14		홍규호	• 現 김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팀장 • 前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• 평택대 사회복지학 박사	현장 (외국인지원)

□ TF 자문위원 (7명)

사진	이름	주요 경력	비고	
< 법률계·학계·연구계 (3) >				
1		강성식	•現 법무법인 KNC 변호사, 한국이민법학회 임원 •現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부회장 •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	법조계
2		김도혜	•現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•前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연구교수 •美 일리노이대 인류학 박사	학계 (유학생 분야)
3		김유휘	•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•現 한국사회복지학회 편집분과 위원 •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	연구계 (사회복지분야)
< 사업자 단체 (2) >				
4		김선애	•現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•前 서울지방고용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•서울시립대 경영학 박사 수료, 공인노무사	대기업, 중견·중소기업 등
5		이기중	•現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•前 국민권익위 청렴사회 민관실무위원회 위원 •송실대 중소기업경영지도학과 석사	중소기업
< 당사자 그룹 (2) >				
6		아가르왈 판카즈	•現 태그하이브 대표이사 •前 삼성전자 CTO Advisor •인도 IIT전자공학(학), 서울대 전자공학(석), 美 하버드 MBA	사업자/근로자
7		유동준	•現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•前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번역상담사 •동국대 인도철학 대학원 수료	현장 (근로자 실태)